

# 다시 '분홍색 10번' 김연경 "이젠 흥국 선수"

### "국내 복귀가 컨디션 유지에 최선" 판단 "모든 팀이 강해 우승은 뚜껑 열어봐야"

한국 프로배구로 11년 만에 돌아온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32·흥국생명)은 "이제 흥국생명의 김연경으로 인사하게 됐다"며 "11년 만에 복귀해 많은 팬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대가 크며 팬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연경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V리그로 돌아온 배경과 각오 등을 담담히 밝혔다.

김 단장은 등 번호 10번이 박힌 유니폼을 김연경에게 전달했고, 김연경은 한글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엄지로 등 번호를 가리키며 포즈를 취했다.

흥국생명은 그간 김연경의 상성과도 같은 10번을 잠정 결번으로 썼다가 이날 주인에게 돌려줬다.

김연경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국내

복귀가 경기력 유지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내 유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연봉과 옵션을 포함해 최대 6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흥국생명의 샐러리캡(연봉 총 상한액·23억원) 운영에 승용을 트여주고자 연봉 3억5000만원만 받기로 했다. 나머지 3억원의 후배 선수들의 연봉 책정에 반영하라는 요청이었다.

김연경은 또 자신의 가세로 '아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아니냐는 팬들의 질망이 우세하다는 질문에 "스포츠클럽이 잘 되고, 말만큼 쉬우면 우승할 것"이라며 "모든 팀이 강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2005년 1라운드 1순위로 흥국생명에 지명된 김연경은 2005~2006시즌



1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김연경이 국내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인상을 받고 화려하게 데뷔했다.

3년 내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2005~2006시즌, 2006~2007시즌, 2007~2008시즌)에 선정됐고 챔피언결정전 MVP도 3회(2005~2006시즌·2006~2007시즌·2008~2009시즌) 수상했다.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뛴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2년을 남기고 2009년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진출해 국외 활동의 막을 올렸다.

김연경은 JT(2009~2011년), 터키 페네르바체(2011~2017년), 중국 상하이(2017~2018년), 터키 예카시바시(2018~2020년)에서 뛰었다. 연합뉴스

# 초반 성적표 좋지 않은 K리그 역대 득점왕

### 다득점자는 3골 이동국 데얀·타가트 등 무득점

2020시즌 K리그 무대를 누비는 '역대 득점왕'들의 초반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올해 K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 K리그 2·2에서 득점왕에 오른 경력이 있는 선수는 총 7명이다.

1부리그 기준으로는 2009년 전북 현대 이적 첫해 득점왕에 오른 이동국을 필두로 2011~2013년 FC서울에서 뛰며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데얀(현 대구), 2016년 광주FC 소속으로 득점 1위에 오른 정조국(현 제주), 지난해 20골을 기록한 수원 삼성의 타가트가 있다.

2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상주 상무를 정상으로 이끈 이근호(현 울산), 2014년 대전 시티즌에서 맹활약한 아드리안노(현 서울), 지난해 광주 한의 승격을 이끈 펠리페는 K리그 2 득점왕 출신들이다. 이들 중 올 시즌 K리그에서 골 맛을 본 선수는 이동국(3골)과 펠리페(1골)뿐이다.

이동국은 수원의 K리그 공식 개막전에서 올해 K리그 전체 '1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서울과의 5라

운드 '멀티 골'을 기록, 3골로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려 리그 최고 골잡이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번 시즌 1부리그에 데뷔한 펠리페는 4라운드까지 팀의 무승 속에 무득점으로 1부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으나 5라운드 수원을 상대로 기다리던 '1부 데뷔골'을 쏘아 올렸다.

타겟 선수는 아직 '침묵' 중이다. 타가트는 5경기 중 4경기 선발로 골 사냥에 나섰다 아직 마수굴이 득점포가 타지 않아 이임생 감독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아드리안노는 3경기에서 나섰으나 선발로 출전한 2경기에서 전반만 뛰거나 전반 종료 이전 교체될 정도로 기대에 걸맞은 기량을 보이지 못했다.

대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새 시즌을 맞이한 데얀은 교체로만 3경기 출전했고, 제주 유니아이티의 승격 도전에 힘을 보태려 간 정조국도 3경기 출전 중 선발은 1경기라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이근호는 무릎이 좋지 않아 지난해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집중해왔는데, 최근 연습경기에 출전하는 등 복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갑 안병준·주민규 누가 먼저 기록 깰까



안병준. 연합뉴스



주민규. 연합뉴스

### '서귀포 혈투' 제주-수원FC 13일 K리그 2 6라운드 맞대결

불거져 넘치는 올시즌 프로축구 K리그 2(2부리그) 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발끝을 자랑하는 '30살 동갑내기' 스트라이커 두 명의 자존심 혈투가 펼쳐진다.

주민규는 5경기 연속골(6골)로 K리그 2 득점 공동 선두를 내달리는

'인민날두' 안병준(수원FC)과 3경기 연속골(4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는 주민규(제주)다.

K리그 3위 수원FC(승점 9)와 4위 제주(승점 7)는 13일 오후 4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하나원큐 K리그 2 2020 6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8위에 그쳤던 수원FC는 올해 안병준의 득점포가 폭발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랐다.

안병준은 5경기 연속골로 6득점(경기당 1.20골)을 기록, 대전하나시티즌의 브라질 공격수 안드레와 공동 1위다. 그는 지난달 25일 충남아산을 상대로 시즌 첫 멀티골(2골)도 기록했다.

이에 맞서는 주민규는 올해 서울 이랜드와 개막전 득점에 성공한 뒤 전남과 2라운드에서 골 침묵을 지켰지만 3-5라운드까지 내리 골 맛을 보면서 4골째를 쌓았다.

안병준과 주민규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 두 선수 모두 1990년생 동갑내기다. 생일도 안병준이 5월, 주민규가 4월로 비슷하다. 키도 183cm로 똑같다. 여기에 안병준과 주민규는 2013년에 처음 프로 무대를 밟았다.

안병준과 주민규의 목표는 K리그 최다 연속골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K리그 역대 최다 연속골은 황선홍과 김도훈이 작성한 8경기다.

현재로서는 안병준과 안드레가 나란히 5경기 연속골로 기록 경신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 하지만 주민규는 2부리그 무대에서 두 차례(2015년·2017년)나 7경기 연속골을 작성했던 '화려한 과거'가 있어 새 기록 달성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연합뉴스

# 무관중 경기 프로야구 파울볼 누가 가져갈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시즌 프로야구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개막 자체도 연기를 거듭한 끝에 힘겹게 이뤄졌는데, 코로나19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무관중 경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시즌 프로야구 구단은 파울볼을 직접 수거한다. 수거한 파울볼은 대부분 타격 연습용으로 사용한다.

9일까지 6연승으로 선두를 질주 중인 NC는 일단 홈 경기에서 발생한 파울볼을 모아두고 있으며, 추후 연습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울볼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구단도 있다. SK는 5월 1일 연습경기 때부터 무관중 경기 이벤트로 파울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 경기 중에 발생한 파울볼을 구단 및 대행사 직원이 최대한 수거해서 유튜브 자체방송 이벤트 등에 참여한 팬들에게 감사 선물로 제공한다.

kt wiz는 마스코트 '빅'과 '포리'가 3회 이후 1루 관중석에서 대형 글러브를 착용하고 파울볼을 줍는 '캐치캐치 이벤트'를 벌인다. 연합뉴스



"이무도 날 못 막아" 10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 경기에서 1회초 NC 선발투수 루친스키가 침착하게 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아영여정(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뉴스타임 9:00 기막힌 유산(재) 9:40 무한리플 샐러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영혼수선공(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이 맛에 산다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5 930 MBC 뉴스 9:50 기분 좋은 날 10:45 끈대인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얼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6:10 열린TV 시청자 세상 16:40 딩동댕 유치원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19:45 지아인트 캠프TV	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8:00 딩동댕 유치원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5:25 띠띠뱀 띠띠뱀 15:55 도깨비가족 16:10 레인보우 루비 16:40 딩동댕 유치원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19:45 지아인트 캠프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테러루 테러베어 마음의 비밀 14:45 아가삼아 울리 뚜루뚜루 15:00 출동! 유혹구조대 15:30 영상앨범 산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강극장 스페셜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몽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17:00 도봇V 2 17:15 캐치 티니핑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3:20 꾸러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30 웃음주식회사 속담수다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전국 TOP10 가요쇼 (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orus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저널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발상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다큐 인사이트 22:55 더 라이브 23:35 속터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5 이세계 핫트슁 22:00 영혼수선공 22:35 영혼수선공 23:10 살림하는 남자들(재)	18:30 생방송 오늘 저녁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끈대인턴 21: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2:05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6개월 후 만남이다 이 작은 집에서 23:10 테마기행 길	18:00 행복실제 일과제(재) 19:00 올레길 놀명수영 긴대보연 19: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맛있는 광장 1부 22:40 맛있는 광장 2부 23:10 맛있는 광장 3부 23:40 점주 무비월드 스페셜	KCTV 7:00 KCTV 뉴스 8:30 취미로 먹고 산다 9:30 제주도농업기술원 영농교육 10:30 문화카페 12:10 판타스틱 특급무비 15:10 제주도농업기술원 영농교육 16:10 마이넷 공중해양 시즌2 17:00 KCTV 뉴스 18:00 문화카페 19:00 KCTV 뉴스7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1일
	36년 말이 많으면 구슬이 오니 바른 언행요망. 48년 흐린 후에 맑은 날이 오니 아직 맑지 않은 상태이니 꾸준함이 필요하다. 60년 답답할 땀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72년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보 수집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84년 가정에 우환이나 문상할 일이 생기기니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42년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니 먼저 화해하라. 54년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나 집안일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66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작위 희소식이 오게 된다. 78년 직장이나 이성관계의 만남이 있으나 만족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90년 시야를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37년 자식생각이 가득하다.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49년 자기 운신의 폭을 넓히고 포용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 61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큰 힘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73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 발동하지 마라. 85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면 풀린다.
	43년 자영업이나 제조업은 서서히 운이 호전됨. 55년 상대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조절을 잘하라. 67년 인간관계에서 배신 배반 또는 문상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79년 좋은 소식이 있다. 하지만 늦은 귀가는 후회가 있다. 91년 자녀한테 용돈을 받는 기쁨도 맛본다.
	38년 내 도움을 나눠줄 일이 있다. 50년 내주장이 강하면 상대가 꺼리니 부드러운 화술이 적절하다. 62년 자식문제 또는 일이나 활동량이 늘어나 바쁘고 분주하다. 74년 타인을 경시하거나 친구와 불화가 일어난 행동을 조심하라. 86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직업이 되려다 취소가 된다.
	44년 거래 시 너무 신중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56년 매매 사업 등에 희망이 보이지만 자녀문제도 마음이 타들어간다. 68년 큰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대기만성의 의미가 필요하다. 80년 학업이나 직업으로 고민, 자신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92년 투기성이나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
	39년 당장 결실이나 재물이 보이지 않아도 서서히 회복한다. 51년 가정 안에서 다툼이나 불화가 생기니 시비는 삼갈 것. 63년 자녀나 업무와 관련해 큰소리가 울린다. 화해 기술 필요. 75년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할 때 사 순탄해지니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 87년 취업이나 직장, 시험에 불리하다.
	45년 새로운 계획이나 변동이 필요한 시기이니 과감한 도전과 결단 필요. 57년 처음에는 안되다 늦게 일해 결실이나 차분한 마음을 가져라. 69년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81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씩 풀이가는 여유가 필요. 93년 내 주장보다는 주의 협조나 충고가 내겐 보약과 같다.
	40년 내 의욕이 강한 척, 능력이 있는 척 허세를 부려도 성과가 미약하다. 52년 명예나 문서로 성취감을 느낄때이니 일이 풀린다. 64년 재물 손실운으로 가까이 밀렸던 이에게 피해를 당한다. 76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날이다. 88년 이성으로 인한 구설이나 다툼이 오니 대항하지 말것.
	46년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58년 일을 숨기기도는 솔직함으로, 잘못이 발생하면 먼저 사과해야. 70년 다툼이나 대립은 두사람의 문제보다 가족에게 확대될 수 있다. 82년 자기 욕심이나 자만은 적을 만드니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 94년 혼자보다는 조언을 들으면 좋다.
	41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데 열중해야 교류가 원활하다. 53년 능력과 의욕을 과감하게 표시시켜 목적에 도전하라. 65년 집착하는 마음보다 여유 있는 판단으로 사물을 접근시키면 이익이 있다. 77년 안전사고 조심하라. 자가운전 조심. 89년 계획했던 일이 순차적으로 풀려나기니 급히 서둘지 마라.
	47년 부드러움과 친절한 대인관계가 운을 상승한다. 59년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빈축을 산다. 미루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71년 물에 기름이 뜨는 듯한 행동은 모두에게 반감을 주게 된다. 83년 평상시의 페이스를 지켜 나가면 좋다. 95년 겉으로 꾸미기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김종상 지단(해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